

[심층] >> 3면
총장과의 대화

[기획] >> 5면
대학언론의 현주소

[사회문화] >> 8면
타다 기소

[학술] >> 9면
올바른 여론형성

총장과의 대화

2019.10.8.(화) 17시 국제회의실

총장과의 대화, 학교 발전 도모의 장을 마련하다

2019. 10. 30(수) 16:00 백년관 국제세미나실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3면에서 계속

글 허지나 기자 99_jina@hufs.ac.kr

지난달 8일과 30일,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서 '총장과의 대화'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지난달 25일 서울 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2009년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가 개원한 이후 10년 동안 이뤄 낸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홍수 공자아카데미 원장과 모춘배 중국측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 △손유중 북경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왕로신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양국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공자아카데미 개원 10주년 동영상 감상 △내·외빈 축사 △우리학교와 북경외국어대학교 기념품 증정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축하공연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통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교육부와 중국어 사무실이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우리학교가 △외국어 교육 △중

국학 연구 △국제화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 간 각 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구체적으로 △중국어 교사의 양성 △내한 중국교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국어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연수 △우리학교 내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중문화교육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국제중국어교육학회 연구토론회의 △세계한어교육사연구학회 등을 개최하며 활발한 문화교육을 펼치고 있다.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는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중국 현지 연수 및 석사과정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교육부의 후원으로 등록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

조미경 기자 99migyeong@hufs.ac.kr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돼

지난 9월 26일 우리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선정한 2019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하 SW중심대학)에 선정됐다. SW중심대학은 현장 중심 문제결정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이란 목표와 함께 인공지능(이하 AI)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AI 융합인력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AI 융합대학을 신설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소프트웨어 전공 입학정원을 최소 40명 이상 늘릴 것이라 밝혔다. 또한 AI기술 기반의 글로벌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전공 내 AI 트랙도 확대할 예정이다.

SW중심대학 선정사업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매해 5개 이상의 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2015년에 8개의 대학이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해 상반기엔 △이화여대 △충북대 △대구

가톨릭대 등의 5개교가 SW중심대학으로 지정됐다. 하반기엔 우리학교를 포함한 5개의 대학이 추가돼 총 40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SW전공 입학정원은 2015년 당시 전국 8개교 1026명이었지만 지난해 30개교 4,822명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3년간 약 4배 증가한 수치이다.

SW중심대학엔 이번 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된다. 4년 차 평가를 통해 성과 우수 대학에 2년간 추가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대학은 △인프라 구축 △인턴십 과정 운영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발 · 운영 △우수 인재 선발 △교수진 채용 지원 등에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부는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AI 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업체 인력을 산학협력 교수로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AI 선도대학의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한 우수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FILA

www.fi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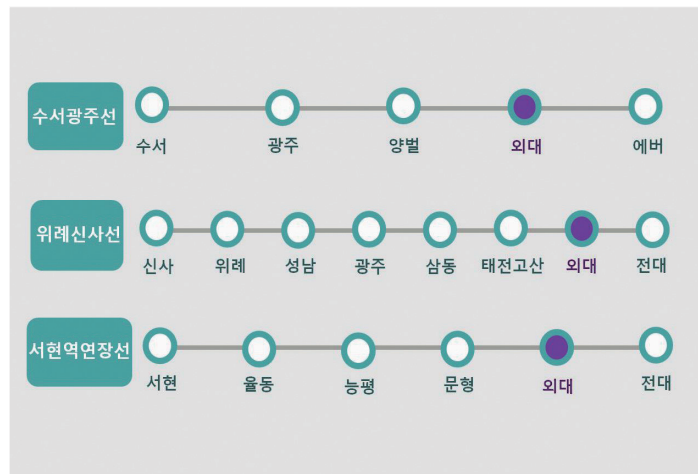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모현 전철역 유치 협력해

지난달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 ‘리액션’ (이하 총학)은 전철추진위원회로부터 모현을 전철역 유치를 위한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총학은 모현을 전철역 추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오프라인 서명과 온라인 청원 참여 홍보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먼저 지난달 7일 개최된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전철 노선 추진 서명 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19일엔 총학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 청원 참여에 대해 설명·홍보했다. 전철추진위원회와 총학은 용인시 시민청원 ‘두드림’에 게재된 모현을 전철역 유치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용인시의 규정 상 용인 시장의 얘기를 듣기 위해선 청원 인원이 5천 명 이상 돼야 한다.

현재 용인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엔 모현을 전철역 신설 계획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전철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선 국가재정법에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 두드림에 게재된 전철추진위원회의 청원



▲전철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전철노선안

따라 모현읍을 지나는 노선의 예비 타당성이 인정되고 중앙정부의 철도망 계획에 추가돼야 한다. 그리고 이후 2021년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안에 전철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예상 가능노선 세 가지 중 하나가 반영돼야 한다. 전철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예상 가능노선안 세 가지는 △수서광주선△위례신사선△서현연장선이다.

한편 전철추진위원회는 모현읍에 전철역을 유치하기 위해 용인시와 광주시의 여러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이를 통해 모현읍을 지나는 전철노선이 생길 경우 우리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교통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허지나 기자 99_jina@hufs.ac.kr

김춘식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국언론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해

김춘식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하 김 교수)가 한국언론학회 제46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식은 지난달 19일, 우리학교 대학원 관에서 열린 ‘2019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도중 진행됐다. 정기학술대회엔 각종 미디어 관련 연구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1부△2부△3부로 나뉘었다. 김 회장은 1년의 임기 기간 동안 학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원활한 온라인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학회를 만들겠다”며 학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드러냈다. 또한, 김 회장은 “학계와 현장을 연결하고 여성 커뮤니케이션학과와



▲김춘식 언론학회 학회장(출처-한국기자협회)

비정규직 회원들의 관심 및 의견을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1987년 우리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과정을 졸업해 우리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로 취임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우리학교 정치언론대학원장△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연구회 회장△언론중재위 선거기

사 심사위원회 위원△한국 언론진흥재단 뉴스트러스트위원회 3기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명사초청 강연 개최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3명의 명사초청 강연이 열렸다. 28일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란 주제의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강연을 시작으로 29일엔 ‘Trauma Surgery’란 주제로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의 강연과 ‘이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하고픈 이야기’란 주제로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의 강연이 개최됐다. 이 중 이국종 교수 강연은 응급수술로 인해 40분 정도 지연됐지만 세 강연 모두 국제세미나실 수용인원 초과로 입장이 빠르게 마감되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국종 교수의 강연을 들은 장우진(통번역·스페인어 19) 씨는 “교수님이 갖고 계신 철학과 인생에 대한 조언 등 배울 부분이 많을 것 같아 강연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사회에 나가보면 불행한 순간이 행복한 순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사회로 진출하기 전인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반면 강연 환경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연 입장정원은 300명이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학생이 강연을 듣기 위해 입장전부터 긴 줄을 섰다. 이에 익명의 한 학생은 “강연을 듣기 위해 입장시간 전부터 줄을 섰지만 듣지 못했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유승민 국회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했었다.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으로 우리나라에 24시간 닥터헬기를 도입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서경덕 교수는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일제강점기 시절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서울캠퍼스 도서관, 정독상·다독상 및 TOEIC·TOEFL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상 시상식 진행해



▲정독상 수상자 시상식

사총평을 밝혔다. 덧붙여 “그럼에도 심사자들이 원했던 글의 형식△논리 전개△ 분명하고 단순한 글쓰기 등 비평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완전히 갖춘 소논문으로서의 에세이를 제대로 구현한 응모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대학의 수업 방식에 변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인도 인문 주간 행사 열려

이번달 28일부터 31일까지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에서 주관하는 ‘인도 인문 주간 행사’가 개최됐다. 나흘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변화하고 있는 인도의 △예술△문화△경제△외교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8일엔 서울시에 위치한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10차 한·남아시아지역 협력기구(이하 SAARC) 파트너십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SAARC 사이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각국 △정부△민간△학계 인사들이 자리했다. 29일엔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선 ‘2019 인도시장 개척 및 진출전략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인도 현지 제품 생산 및 기술 제휴 방안 △인도시장 이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인도 진출 방안 △인도 흡수평 및



▲인도연구소 인도 인문 주간 포스터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30일부터 31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선 △헤나 체험△히말라야 인문강좌△인도 전통춤 공연△인도 영화상영△이드리시 아흐메드(Idris Ahmed) 인도 작가 사진전 등 인도 문화 체험을 위한 여러 행사가 열렸다. 우리학교 인도연구소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도 문화 홍보에 앞장섰다. 한편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조현수(사회·미디어 18) 씨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도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돼 의미 있고 유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안효빈 부장 97anhoybin@hufs.ac.kr



▲다독상 및 TOEIC·TOEFL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상 시상식

지난달 10일 서울캠퍼스 도서관 관장실에서 정독상·다독상 및 TOEIC·TOEFL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정독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오하석(사회·정외 15) 씨로 선정됐다. 다독상 우수상은 이규빈(서양어·스페인어 11) 씨가, TOEIC·TOEFL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상 우수상은 김지원(사회·미디어 13) 씨가 받았다. 정독상 수상자는 △최우수상 1명△우수상 2명△장려상 4명으로 총 7명이다. 다독상은 총 8명(우수상 1명과 장려상 7명)이, TOEIC·TOEFL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상은 총 4명(우수상 1명과 장려상 3명)이 받았다.

정독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상철 이탈리아어과 교수는 “자신의 삶과 생각을 곁들여 비평하거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과 견주어 표현한 우수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며 정독상 작품작심

한편 정독상 최우수상을 받은 오하석 씨는 “평소에 취미로 서평을 쓰다가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며 “겨울방학이 끝나기 2주 전부터 자료 조사하며 글을 썼다”고 지원동기와 과정을 밝혔다. 이어 “최우수상을 탈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상을 받아뽕뽕하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총장과의 대화, 학교 발전 도모의 장을 마련하다

지난달 8일과 30일, 각각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오바마홀 지하 국제회의실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총장과의 대화’가 열렸다. 설캠엔 김민철 총장(이하 총장)과 더불어 △나진구 교무처장△곽전주 행정지원처장△이태욱 기획조정처장△이선범 비상대책위원장△

중앙운영위원회 위원△관련 부서 팀장 등이 참석했다. 마찬가지로 글캠엔 총장과 함께 △조기성 부총장△이태욱 기획조정처장△전종섭 교무처장△전종근 행정지원처장△김수완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자리했다. 각 캠퍼스 총장과의 대화에서 오간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캠퍼스 총장과의 대화

Q. 지난달 7일 이뤄진 정기총회(이하 정총)에서 △권력형 성폭력 가해 A교수에 대한 장기근속포상 철회요구△포상규정개정△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이 연루된 사안에 한해 학생 의사개진권 부여 방안 등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장: 포상 규정 개정엔 동의하지만 그 정도는 조정해야 합니다. A교수는 징계를 받았으며 학교 측은 이번 학기에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교수의 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큰 처벌입니다. 그런데 A교수는 사건 발생 전 우리학교에서 10년 봉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워 규정에 따라 1년의 기한을 제외하고 포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을 철회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제시된 개정안엔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포상의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봉은 이번 사안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받게 될 수 있으며 아무리 오랜 기간 노력해도 포상의 기회에서 제외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조항에 ‘단,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가한 자 혹은 횡령 등의 행위에서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 10년 동안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이 적합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하며 그런 관점에서 이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시한 규정 개정안을 참고해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의 학생 참여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불가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의사개진권은 학생 대표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회의에 참가해 입장을 밝히는 정도로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무처장: 지금 현행 규정안 제7조에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포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앞으로 여러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해 해당 규정을 가다듬겠습니다.

Q. 지난해 우리학교 입시결과(이하 입결)표가 인터넷 수험생 사이트에 공개되며 일부 학과의 낮은 커트라인이 화제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이는 다른 학교는 입결의 상위 80%만 공개하는 데에 비해 우리학교는 100% 다 공개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입결은 학교 위상과 수험생 인식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장: 우리학교 입학처장께서 이에 대한 전략을 갖춰 잘 대처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학교의 상위결과가 우리학교의 하위결과와 비교되진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생들이 부담 없이 많이 지원하고 입학한 후 학과를 선택할 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선 추후 입시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처럼 우리학교도 통합모집을 해 입결을 상승시키자는 논의를 시작했으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입시지원율을 분산시키는 방향입니다.

Q.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전에 여러 단과대학이 통합모집을 시행했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논의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총장: 목적엔 신입생 학과 모집에서 비롯되는 경쟁률 저하 해소와 영역별 계열기초공통과목의 선(先)수강을 통한 전공 탐색의 기회 부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명이나 4명처럼 적은 수를 모집하는 학과의 전형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상대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통합모집을 통해 모집인원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더 선호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엔 한 학과에서 통합모집으로 들어온 학생과 아닌 학생들이 섞여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전공 수업 이해도에 차이가 나 수업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모집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입시정책의 논의가 구체화될 때까지 가급적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상반기 총장과의 대화에서 “총장직선제의 논의에 지금은 직접 참여하기 어렵지만 학내 구성원들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때 직접 목소리를 내시고 힘써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총장: 전 아직 학교 발전에 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총장선출제도 세 주체 논의 구도에 저까지 관여하게 되면 사안이 더 복잡해 집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정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화제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논의가 단순한 화젯거리 정도지만 다음 해 초쯤엔 논의거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 다음 해 봄이나 늦어도 8월 이전엔 합의가 되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장직선제와 관련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지켜보며 그에 총장으로서 동의할 것입니다. 다른 주체들이 잘 합의해 다음 해 가을 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설캠 총장과의 대화 모습



▲글캠 총장과의 대화 시작 전 모습

◆글로벌캠퍼스 총장과의 대화

Q. 글캠 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내년 40주년 개교기념일에 맞춰 리모델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약속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장: 글캠엔 도서관과 박물관을 함께 지을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설캠과 비슷한 규모의 돈이 투자될 것입니다. 도서관과 박물관은 대학의 정통성을 나타냄으로 이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10월쯤에 40주년을 기념하며 도서관 건립 발원 기금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Q. 총장께서 도서관과 박물관 리모델링을 얘기하며 ‘설립자 유물을 전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설립자는 친일파 논란을 가진 인물입니다. 명수당 앞 설립자 동상 부정 여론에 더해지는 논란이 될까 우려됩니다.

부총장: 언급한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은 설립자에 관련된 유물이 아닌 설립자가 모아온 수집품입니다.

총장: 설립자의 유물 중엔 귀한 유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섭의 그림과 같은 고가의 유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설립자를 친일파라고 확정 짓지만, 그것은 검증이나 반증이 힘들어 개인적으로 친일이라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친일파 주장의 근거는 당시 설립자의 포목 사업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일본의 군수물자로 사용됐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지나 일본의 군수물자로 사용됐다면 모르고 한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립자의 동상이 있는 곳에 대학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우리학교 설립자는 우리나라의 국제화를 위한 인재양성의 총정수로 우리학교를 세웠고 결과적으로 국제화 대학을 일궈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하길 바랍니다.

Q. 설캠과 비교해 글캠에 전체 장학금 액수가 더 적습니다. 또한 성적 장학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일부 학과에서 성적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총장: 원칙적으로 양 캠퍼스의 장학금 비율은 절반이며 성적장학금 기준은 자율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설캠에 △새터민 학생△외국인 학생△6.25 참전용사 장학사업 지원 대상 학생△외국인 노동자 자녀 학생이 많아 그 수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적으로 앞으로 성적 장학금을 줄이더라도 생활장학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장: 일부 성적 장학금이 성적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 지급돼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있다면 총학을 통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검토한 뒤 학과장과의 협의한 후 개선점을 논의해보겠습니다.

학생·인재개발처장: 성적장학금 지급 기준이 오로지 성적에만 있다면 장학금 지급처는 일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마다 특수성이 있기에 학과에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점차 성적 장학금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순 없으나 고려대의 경우 성적장학금을 없앴 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학교만의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 논의하겠습니다.

Q. 등록금이 쓰이는 과정과 투명성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비교적 더 많은 금액을 내는 단과대학(이하 단대)에선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총장: 등록금의 투명성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등록금 사용 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에 고지되고 있으며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전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등록금은 12년째 동결돼 있고 학교는 전체 예산에서 등록금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등록금에 상대적으로 더 내는 단대들의 요구 조건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대들은 다른 단대보다 강의 취득 수가 많으며 교수와 학생 수의 비율이 더 양호한 편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난을 위한 방안

우리나라의 저조한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이 계속해서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43.7%이며 청년 취업자 수는 395만 명이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7.1%이고 청년 실업자 수는 31만 3천명이다. 취업난으로 대학교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년들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이에 △취업난의 원인△우리학교의 취업현황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우리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다른 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정부의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좁아지는 취업의 문, 왜?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35개 중 30위의 낮은 청년 취업률을 보였다. 또한 2017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률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기술개발과 자동화로 인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최소화하고 외주 용역 비중을 늘려가 직접 고용을 줄여가는 추세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혁신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에 청년 실업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무직이나 생산직 일자리에 청년들이 몰리면서 기술직 일자리나 저숙련 일자리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취업에서도 사무직이나 생산직과 같은 일자리를 더 선호한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학교의 취업현황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우리학교 입학처가 이번 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캠퍼스에선 경영대학이 72.3%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어서 △서양어대학 69.4%△아시아언어문화대학 68.9%△상경대학 65.3%△국제학부 58.6%△사회과학대학 54.6%△중국어대학 54.3%△일본어대학 48.9% 순으로 집계됐다. 취업률이 가장 낮은 단과대학은 사범대학으로 45.5%의 취업률을 보였다.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공과대학이 66.3%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어 △경상대학 65.9%△국제지역대학 58.6%△자연과학대학 57.8%△인문대학 55.8%△동유럽학대학 54.7%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어 통변역대학이 47.8%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동민(사회·미디어 13) 씨는 “주변 사례만 봐도 취업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친구들 중 소수만 상반기에 취업했으며 많은 취업준비생이 현재를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성장은 더디고 취업준비생이 늘어가는 이 상황에서 취업난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에서 취업 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나 임금의 차이가 크다보니 학생들이 대업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꺼리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취업준비생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뒤집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난에 대응해 우리학교에선 △진로 설계 및 취업준비 상담△대학추천채용 지원△진로 교양 필수 강좌 운영△고시반 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취업을 앞둔 4학년들을 위해 △기업직무적성검사 대비교육△자기소개서 작성 훈련프로그램△실전모의 면접 프로그램△취업캠프△기업 채용추천 및 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특강△직무교육프로그램△기업리쿠르팅△직무박람회이다.

*취업특강: 매학기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특강 등의 다양한 특강
*직무교육: 방학 중 해외영업, 마케팅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무에 관련된 교육
*기업리쿠르팅: 매학기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학교에 방문해 채용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하는 행사
*직무박람회: 학생들에게 해당 직무별 기업체의 △인사담당자△직무분야별 담당자△동문 선배와의 상담 및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대학추천채용 지원: 우리학교가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직과 한국은행 및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업체에 조건이 해당되는 학생을 추천하는 프로그램
*국내·외 현장실습 지원 프로그램: △우리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기업에서의 현장실습 및 학점인정 지원△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 인턴십△해외문화홍보원 인턴십△한국무역협회 해외인턴십 등 현장실습 지원하는 프로그램
*고시반 지원 프로그램: △국립외교원연구실 · 공인회계사반(한림정)△사범

고시 · 로스쿨반(의향재)△행정고시반(사민재)△언론고시반(데모스)△임용고시반 · 공공인재양성반(청람재) 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우리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상현(통변역·스페인어 14) 씨는 “우리학교는 진로취업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취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생활을 하며 진로취업센터가 각 학과 및 학생자치기관과도 융통성 있게 협업하는 모습을 많이 접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나 직무박람회 등



▲직무박람회장 입구



▲직무박람회 현장 모습

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무역협회와 진로취업센터에서 준비해 준 무역요원 양성 과정을 수료하며 무역학에 관련된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정찬일(통변역·이탈리아어 15) 씨 또한 “우리학교 진로취업센터엔 직무박람회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학 중인 학우들부터 졸업한 선배들까지 해당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있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단순한 명목상의 취업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특강과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같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참여해보진 않았지만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같은 프로그램은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일 진로취업센터 팀장(이하 윤 팀장)은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진로취업센터 방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매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모든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해 프로그램을 △보완△폐지△개설하며 계속해서 바뀌는 채용동향을 프로그램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이 이종전공 등을 잘 활용해서 융복합 역량과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 및 역량을 강화한다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른 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에선 모두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캠퍼스리쿠르팅△취업진로상담 등 우리학교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학교마다 특색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에선 사회 각 분야별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교·강사로 선임해 취업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선 취업노하우를 열람할 수 있다. 취업노하우엔 선배가 후배에게 자신의 취업 사례와 직무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연세대학교는 입사서류 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초빙된 전·현직 대기업 근무자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팁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10·20명씩 조를 구성해 서로의 서류를 읽고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선 학과나 전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각종 공모전에 대비해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회를 개최한다. 한양대학교에선 △공기업 기술문제 제공△취업 관련 간담회△취업관련 교과목 운영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내일배움카드’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나 실업자에게 국비를 지원해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생 등이다.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 계획 구체성△훈련 필요성△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취업의지 없이 자기계발이나 경력쌓기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34세 사이 청년들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졸업이나 종퇴 이후 2년 이내△미취업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프로그램을 지원한 적이 없는 자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혜택으로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취업성공금 지원△고용서비스 지원이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선 취업날개 서비스와 서울시 일자리 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날개 서비스는 청년들에게 면접대비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또한 서울시 일자리 카페는 청년들이 취업 전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이다. 서울시 곳곳에 위치한 이 카페에서 서울시 일자리 카페 키오스크를 통해 △기업의 채용정보△취업전략△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학언론, 과거와 미래의 교차점에 서다

대학언론은 교내·외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독자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언론은 과거와 달리 학생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학교 내 소식에 관

심이 없거나 종이 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학신문은 독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이에 대학언론의 △역할과 역사△현시대의 의미△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대학언론의 역할과 역사

대학언론은 △학생△교직원△졸업생 등을 포함한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언론은 주로 총장 명의로 발행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신문은 1912년 미국 선교사들이 경영하던 평양의 숭실학당 대학부가 발행한 ‘숭대시보’다. 대학신문은 광복 이후 ‘경성대학예과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발행됐다. 초기 대학언론은 주로 대학 기관에 소속돼 기관을 홍보하며 기성신문과 달리 교내의 사건과 학생의 의견을 반영했다. 대학언론은 군사 독재 시절 학생운동과 함께했으며 민주화 시기 대학문화를 선도했다. 당시엔 인터넷 등의 매체가 발달하지 않아 종이 신문을 통해 학생운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에 그 영향력이 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쇠퇴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학언론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됐다.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언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대학언론의 위기

대학언론은 국내·외 여러 사안에 대해 다룰 뿐만 아니라 학내 여론을 형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캠퍼스 내에서 대학언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독자들의 관심이 줄어든 첫 번째 이유론 종이신문의 쇠퇴를 들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쉽고 간편한 매체의 발달로 종이신문을 찾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 이유론 주요 독자인 학생들이 학내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론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가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간 점을 들 수 있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이라고 불리는 익명 기반 대학 커뮤니티를 이용한다. 이 커뮤니티는 재학생 인증을 한 같은 학교 학생들만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표△수업일정△학교식당 메뉴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 정보를 접하기에 편리하다. 익명을 기반으로 운영되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의견 표출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에타에선 정보의 교류가 빠르기에 다양한 학내 사안이 공유되며 학생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우리학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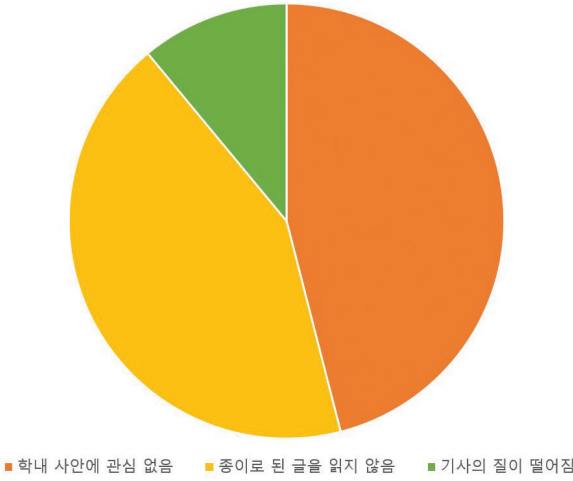
우리학교 교내언론기구는 △학보사 「외대학보」△영자신문사 「디아거스(The Argus)」△교지편집위원회 「외대」가 있다. 외대학보는 1955년 4월 11일에 창간된 이후 우리학교의 역사를 담아왔다. 우리학교 역사관에 따르면 외대학보는 “우리학교의 공기(公器)로서 교육이념인 △진리△평화△창조를 사시로 해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대학생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건전한 학풍 진작으로 보다 나은 면학과 학교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간됐다. 또한 이는 1986년 4월 8일 자인 439호에 2면의 사설 〈교육의 목적을 망각한 군사교육〉과 6면 기사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생명,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등을 통해 대학생다운 방식으로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하고자 했다. 방학과 시험 기간을 제외한 격주로 발행된다. 디아거스는 1954년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어신문이다. 영문으로만 발행되는 지금과는 달리 창간 초기의 디아거스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독일어△일본어△스페인어 등 다양한 제2외국어로 발행돼 우리학교의 특성을 살린 외국어 종합지였다. 교지 외대는 우리학교의 공식 언론기구 중 유일하게 발행인과 편집장이 학생인 학생자치 언론기구다. 일 년에 총 네 권의 계간지 형태로 발간되며 학내의 사안뿐만 아니라 사회나 문화 분야의 글도 기고된다. 교지는 매 학기 학생들의 교지대로 운영된다.

본지는 우리학교 교내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현황과 독자의 비율 등을 알기 위해 에타를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내언론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3%의 학생들이 ‘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내언론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을 자주 읽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읽지 않는다’ 49%△‘가끔 읽는다’ 32%△‘자주 읽는다’ 19%가 있었다. ‘학생들이 교내언론에 무관심한 이유’엔 △‘학내 사안에 관심이 없다’ 45%△‘종이로 된 글을 잘 읽지 않는다’ 44%△‘기사의 질이 떨어진다’ 11%로 답했다. 또한 ‘학교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로 △‘페이스북과 에타를 포함한 온라인’ 62%△‘오프라인(학교 내 게시판, 친구)’ 25%△‘교내언론’ 13%를 꼽았다. 교내언론이 매일 발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시의성이 떨어져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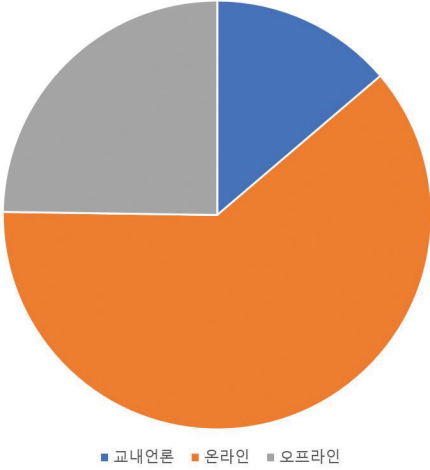
◆대학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종이에 써여진 글을 잘 읽지 않는 현 상황은 대학언론뿐만 아니라 인쇄 매체 전체가 직면한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이 제시된다. 연세대학교의 신문사 ‘연세춘추’는 무거운 내용의 신문을 꺼리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잡지 ‘The Y’를 발행한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인 △자취방 추천△맛집 지도△학교 인근 상권 등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가벼운 내용의 칼럼과 인터뷰로 지면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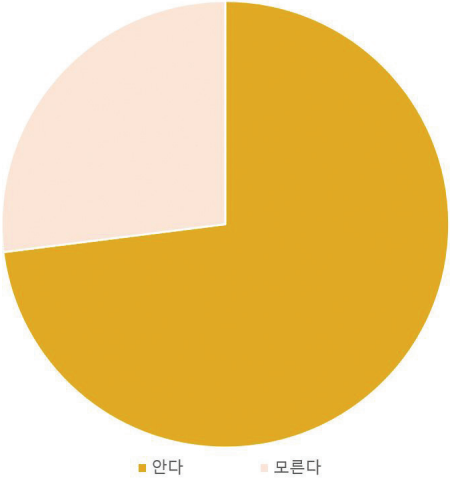
교내언론을 읽지 않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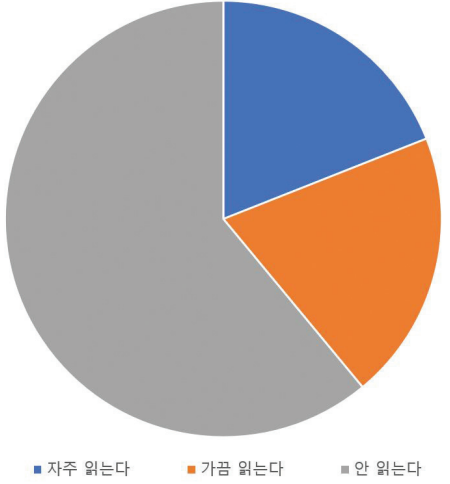
학내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



교내언론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교내언론을 자주 읽는가



김지연(동유럽·세크어 19) 씨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신문이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신문의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불편함을 말했다. 김시유(자연·화학 19) 씨는 “아무래도 요즘 대학생들은 많은 정보를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소비한다”며 “특히 종이신문같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은 갈수록 그 존재 자체를 잊게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내 사안에 관심을 두고 인식을 해야 학교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다루는 교내언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학교나 도서관 앱처럼 교내언론을 앱으로 만들어 각종 정보나 최근의 학내 이슈들을 올릴 수 있는 장을 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대학언론이 학생들에게 읽히는 신문이 되기 위해선 인쇄 매체가 직면한 문제점과 교내언론이란 한계점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Nyilatkozat

기미독립선언서 - 헝가리어 번역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외대학보 공동기획



번역
이상동
헝가리어과 강사

감수
Urban Alexandra
송실대 HK+ 연구사업단

Ezennel kikiáltjuk Csozon függetlenségét és a csossoni polgárok szabadságát. Kijelentjük a világ nemzeti előtt azért, hogy kinyilvánítsuk az emberek közötti egyenlőség princípiumát, és továbbadjuk minden utódunknak, hogy élvezzék örökké népünk túlélésre való igaz jogát. Kijelentjük ezt népünk ötezer évnyi történelmére támaszkodva és húsz milliós nemzetünk hűségét egyesítve, annak érdekében, hogy örökké biztosítsuk a nép szabad fejlődését, és felvetjük ezt a problémát annak érdekében, hogy mi is csatlakozzunk ezen fontos lehetőséghez és szerencsés fordulóponthoz, mely az emberiség lelkiismeretének megtestesülése. Ez az ég parancsolata, a kor fő áramlata és az egész emberiség közös túlélési jogának megfelelő mozgatórugója. Semmi az ég alatt ennek útját nem állhatja, el nem fojthatja. Egy letűnt kor örökségeként megmaradt agresszió és önkényuralom oltárán áldoztak fel minket, és a történelem kezdete óta, több ezer éve először immár tíz éve tart az a fájdalom és szenvedés, amit egy idegen nép elnyomása alatt kell eltöltenünk. Mennyit vettek el tőlünk ez idő alatt túléléshez való jogunktól? Mennyi minden akadályozta ez alatt szellemi fejlődésünket? Mennyi seb esett népünk méltóságán és becsületén? És hány olyan lehetőséget veszítettünk el, melyben kiemelkedő újdonságokkal és kreativitásunkkal hozzájárulhattunk volna a világ kulturájának áramlatához? Ah! Ahhoz, hogy tudassuk a világgal régi sérelmeinket, hogy kitörjünk jelen szenvedéseinkből, hogy elhárítsuk a jövőbeni veszélyeket, és felszabadítsuk és kiterjesszük nemzetünk lelkiismeretét és országunk méltóságát és erkölcsiségét, hogy megfelelően műveljük minden egyes állampolgár jellemét, hogy szerencsétlen gyermekeinknek ne a szegyeteljes jelent hagyjuk öröklül, hogy teljes boldogságot biztosítsunk utódainknak, legfőbb és legégetőbb feladatunk népünk függetlenségét biztosítani. Ezért ma húsz millió lélek fog kardot szívében, és az egyetemes emberiség és a korfelfogás az igazságosság seregével és az erkölcsi törvény fegyverével segít minket, milyen erő állíthatna meg minket, mi téríthetne el attól, hogy hogy elérjük ügyünket?

Nem azért vagyunk itt, hogy megbüntessük Japán árulása miatt, amiért a 1876-os Baráti

szereződés óta több, komoly megállapodást megszegett. Nem is a hűség hiányáért akarjuk megróni, csak mert tanáraik a pódiumon, vagy politikusaik a közéletben ősi dinasztiktól örökölt életmódunk miatt gyarmatként, civilizált népünkre pedig barbárokként tekintettek, és csak a hódítók élvezetét tartották szem előtt, míg ősi társadalmunk alapjait, vagy népünk kiváló jellemét figyelembe sem vették. Az önvizsgálat és Önmagunk bátorításának sürgőssége nem hagy időt bíraskodnunk mások felett. Megállás nélkül dolgozunk azon, hogy hiányok nélkül, aprólékosan felkészüljünk a jelenre, ezért nincs időnk arra, hogy megbüntessük őket a múltbeli sérelmekért, vagy rávilágítsunk hibáikra. Legfontosabb feladatunk ma önmagunk újjáépítésében, és nem mások elpusztításában rejlik. Munkánk célja, hogy lelkiismeretünk ünnepélyes parancsára megrajzoljuk sorsunk új vonalát, nem pedig, hogy múltbeli neheztelések vagy pillanatnyi érzelmek miatt irigykedjünk vagy kiközösítsünk törekvésének esett áldozatul. Helyre kell állítanunk azt a folyamatot, mely során ezek helyes és tisztességes alapelvekké válnak. A két ország násza kezdetektől nem a nép kívánságából eredt. Nézd csak a jelen helyzetet, mely ennek eredményeképp a silány elnyomás, az egyenlőtlenség és a hamis számadatok között csak még inkább elmélyítette a gyűlölet szakadékat két olyan nép között, mely nem érti meg egymást és ezért együtt soha nem élhet békében. Hiszen ki ne látná, hogy a legrovidebb út az egymással szembeni indulatok lecsendesítéséhez és a jólét elhozatalához az, ha késlekedés nélküli, felvilágosult tettekkel orvosoljuk a múlt hibáit, új, baráti helyzetet teremtünk mely a valódi megértésre és rokonszenvre alapoz? Illetve ha erőszakkal akarnánk egy haraggal és gyűlölettel telt húsz milliós népet leláncolni, az nem csak hogy nem válhatna a Kelet örökös békéjének zálogává, de elmélyítené a Kelet békéjében és krízisében döntő szerepet játszó négyszáz millió kínai polgár Japán iránt érzett, félelmét és egyre növekvő irigységét. Ez egész biztosan a távol-keleti régió népeinek kölcsönös pusztulásához és tragédiájához vezetne. Ezért Csozon függetlenedésének célja, egyrésztől az, hogy népét a megfelelő élet jogszerű útjának keresésére indítsa; másrésztől esélyt adjon Japánnak arra, hogy elforduljon a rossz iránytól és a Távol-Kelet vezetőjeként beteljesítse felelősségét és ezzel megszabadítva Kínát szorongásaitól és félelmeitől mely még álmukban is kíséri őket. Illetve hogy a világ, és ennek fontos részeként a Kelet békéjének, illetve az emberiség boldogságának fontos lépcsőjévé válj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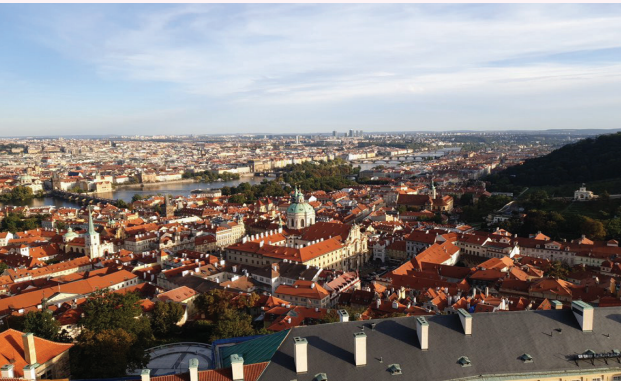
Ah, Hogyan is tekinthetnének ezt egyszerű érzelmi kérdésnek! Íme, egy új világ tárult fel szemünk előtt. Az Erő Kora letűnt, és az Erkölc Kora jött el. Az erkölcsi törvény és az emberségesség szelleme, mely elmúlt évtizedek alatt folyamatosan csiszolódott és formálódott, most az új civilizáció sugarait kezdte szórni vonja az emberi történelemre. A földre érkező új tavasz minden teremtményt túlélésre ösztönöz. Ha a múlt olyan volt, mint a kegyetlen hideg mely az ember lélegzetét is benn fojtja és őt mozdulatlanságra kényszeríti. Akkor a jelen tagjaiba a tavasz balzsamos szellője és melege lehel új életet. A világ ismét visszatérő változás hullámaint meglovagolva, többé nincs okunk tétovázni, vagy tétlenkedni. A végsőkéig megvédjük a szabadsághoz való közös jogunkat, és élvezni fogjuk a teljes élet örömét. Gazdag alkotó képességünket felvonultatva tiszta és ragyogó nemzeti kultúrát hozunk el a tavaszi levegővel teli földre. Ennek segítségével leszünk szabadbád. A lelkiismeret velünk van; az igazság is velünk tart majd. Öreg és fiatal mind felpattan sötét és dohos nyugvóhelyéről, a természettel együtt boldogan és jókedvűen támadunk majd fel. Régi őseink szelleme láthatatlanul is védelmez minket, kívülről pedig a világ áramlat segít minket, ezért a kezdet már fél siker. Induljunk hát lendületesen előre, fényt követve.

Három Fogadalom

1. Ez a felkelés a nép kívánságára az igazság, emberségesség, élet és méltóság elveinek érdekében született. Csak szabadságunk szellemét akarjuk bizonyítani, nem fogunk önkényes érzelmek miatt letérni a helyes útról.
2. Az utolsó emberig és az utolsó pillanatig hűségesen fogjuk képviselni a nép valós szándékait.
3. Minden tettünk a tisztességet tartja majd szem előtt, és érveink és magatartásunk a lehető legtisztességesebb és becsületesebb lesz. A Koreai Királyság 4252. évében, (1919.) március hó első napján Son Pyong-hui, Kil Son-ju, Yi Pil-chu, Paek Yong-song, Kim Wan-gyu, Kim Pyong-jo, Kim Chang-jun, Kwon Tong-jin, Kwon Pyong-dok, Na Yong-hwan, Na In-hyop, Yang Chon-baek, Yang Han-muk, Yu Yo-dae, Yi Kap-song, Yi Myong-yong, Yi Sung-hun, Yi Chong-hun, Yi Chong-il, Lim Ye-hwan, Pak Chun-sung, Pak Hui-do, Pak Tong-wan, Shin Hong-shik, Shin Sok-ku, O Se-chang, O Hwa-yong, Chong Ch'un-su, Choe Song-mo, Choe Rin, Han Yong-un, Hong Pyong-gi, and Hong Ki-jo

유서 깊은 도시, 프라하

국토 대부분이 서안해양성 기후에 속해 연평균기온 약 7~10도의 온화한 날씨를 가진 체코는 유럽의 중심에 있어 동유럽 특유의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풍긴다. 그중에서도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체코 최대 △경제△정치△문화의 중심도시이자 프라하 성, 까를교 등 예술적 건축물의 집합지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프라하의 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유적도 많아 중심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저렴한 물가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한 달 살기 여행지로도 주목받는 프라하에 대해 알아보자.



▲까를교에서 본 전경

첫 번째로 알아볼 관광지는 프라하 성이다. 프라하 성은 9세기 말 경 보리보이(Borivoy) 공에 의해 세워졌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증축돼 18세기 말이 돼서야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됐다. 처음 건설될 당시에 로마네스크양식으로 지어졌으나, 13세기 중엽에 고딕양식이 첨가됐다. 이후 14세기에 프라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카를 4세에 의해 왕궁과 성십자가교회 등이 새롭게 건축되면서 체코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됐다. 프라하 성은 도심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역대 체코 왕가를 지켜왔다. 현재는 성당, 수도원을 제외한 궁전건물이 대통령 관저로 쓰고 있다. 프라하 성은 △성 비투스 대성당을 포함한 성당 3곳△수도원△궁전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프라하 성 중심에 있는 성 비투스 대성당엔 당대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이 모여있다. 이곳엔 체코의 국민 화가였던 알폰스 무하의 대형 유리화 작품 '성 치릴로와 성 메토디오'와 왕비의 고해성사 비밀을 유지하다 순교한 성 요한 네포무 신부의 은관 등 역사적 유물도 보관돼 있다. 성 바츨라프 예배당엔 세계 최대의 사파이어가 박혀 있는 왕관이 전시돼 있으며 황금색으로 옷칠한 예배당 벽에도 △석류석△자수정△에메랄드 등 약 1,300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관광지는 까를교다. 블타바 강 오른쪽의 구시가지와 왼쪽의 프라하 성을 연결해 주는 까를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다. 까를교는 까를 4세가 블타바 강에 놓은 다리로 성 비투스 성당을 지은 페테르 파블레시가 공사를 맡았다. 16개 아치가 떠받치고 있는 이 다리의 양 끝 탑은 본래 통행료를 받기 위해 세워졌으나 지금은 강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다.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걸쳐 제작된 30개의 성인상도 걸작으로 꼽힌다. 다리 양옆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 요한 네포무크△성 루이트가르트△성 비투스 등 체코의 유명한 성인 조각상이 전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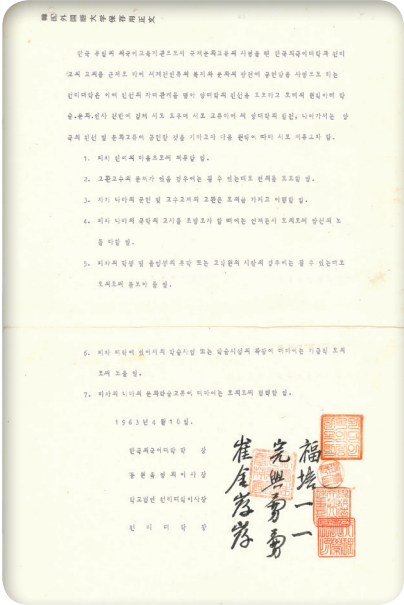
이밖에도 까를교에선 음악과 마리오네트 인형극과 같은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이처럼 구시가지 코пать에서 내려다보는 프라하 성과 블타바 강의 전경은 많은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우리학교 교류의 시작 : 일본 천리대학과의 문화교육교류협정서



▲문화 교류 협정 체결 장면



▲문화 교류 협정 체결서 원본

국내 최초 외국어와 외국학 전문 고등교육 기관으로 출발한 우리학교는 개교 이래 세계 유수의 대학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의 공유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국제 사회의 변화와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교육 및 연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재생산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외 활동 중 대학 간의 교류 협정은 교수와 학생의 교환, 문헌과 교육 교재 교류 등 인적·학술적 교류를 망라하고 상호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음 기록물은 1963년에 우리학교가 일본의 천리(天理)대학과 맺은 우리학교 최초의 교육교류협정서다. 이 협정서엔 양 대학의 △교환 교수와 문헌△교재의 교류△편의에 대한 사항△유학생과 교직원 등 가능한 범위에서 인적 교류, 학술적 사업 및 학술 시설에 대한 편의의 교류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1960년대 국내에선 사회적으로 반일 감정이 거셌던 시기로 일본 정부와의 공식 교류는 물론 △경제△사회△교육 등 민간 기관 간 교류가 거의 없던 시기였다. 서울 소재 주

요 대학들의 일본 대학과의 교류 교류가 주로 1970년대에 시작해 1980~90년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우리학교의 이러한 국제 교류 활동은 시대를 앞서간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963년 천리대학과 맺은 교류 협정을 시작으로 이후 우리학교는 다양한 세계 교육 기관과 교육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현재 100여 개국, 700여개 대학 및 기관과 교육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문△문화를 존중하고 이들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우리학교의 이념,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구축된 세계를 향한 네트워크와 교육 인프라는 우리학교의 강점이자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얼어붙은 학생자치, 양 캠퍼스 하반기 정기총회를 돌아보다

지난달 7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컨퍼런스홀과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하반기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글로벌캠퍼스 정기총회는 제4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리액션의 주도 하에 열렸으며, 정족수는 전체 재학생의 10%인 678명이었다. 제53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끈 서울캠퍼스 정기총회의 정족수는 826명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이는 전체 재학생의 10%였다.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전, 양 캠퍼스의 비대위와 총학은 간식을 증정하거나 경품을 지급하는 등 정기총회 성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글로벌 캠퍼스 정기총회에선 정족수는 채워졌으나 총회 중간에 다수 인원이 이탈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고 서울캠퍼스 정기총회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이번 양 캠퍼스 간 정기총회의 △내용△상황△무산 원인을 돌아보고자 한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의 성과와 업무보고

이날 정기총회는 △공약 이행률 보고△업무 보고△논의 및 의결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총학이 선거 당시 약속했던 총 27개 공약 중 이행 완료된 공약은 17개다. 총학은 현재 나머지 10개 공약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총학 내부 국서인 △기획조정국△사무재정국△정책국△대외협력국△집행국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해당 순서에선 국서별 완료 공약 및 정책 진행 상황을 밝혔다.

한편 진행 공약 중 실천 가능 공약에 대한 질문엔 한준혁 총학생회장(이하 한 회장)은 총장직선제와 관련해 학교 측과 합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회장은 “총장직선제와 관련한 전체 교수협의회가 예정돼 있다”며 “총장선출개선위원회의 공식 발족이 통과된다면 2021년에 총장직선제가 시행될 때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총장직선제 시행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또한, 광역버스 노선 구선에 대해선 “현재 ‘서울-강남’ 2가지, 수월 1가지로 노선을 구성 중”이라 밝혔다. 동시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은 교내 부서와 조율 중이며 현재 수시로 변하고 있어 확답이 어렵다”고 전했다.

◆글로벌캠퍼스 정기총회 논의 및 의결안건

정기총회의 논의 및 의결안건은 총 6개로 △민주적 총장직선제 마련△징계위원회의 학생참여보장△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 캠퍼스별 할당 금액 균등화△장학금 제도 확대 및 캠퍼스별 장학금액 균등화(학과별 성적 장학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등록금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 및 각 단과대학 등록금 재심의△캠퍼스 내 전과 및 전입 인원 확대로 구성됐다. 이날 △민주적 총장직선제 마련△징계위원회 학생참여 보장△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 캠퍼스별 할당 금액 균등화는 의결됐으나, 네 번째 안건인 장학금액 균등화를 포함한 나머지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인해 가결되지 못하고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의결된 안건은 △민주적 총장직선제 마련△징계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 캠퍼스별 할당 금액 균등화로 총 3가지다. 첫 번째, 민주적 총장직선제 마련 안건은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의결됐으며 교수 중심의 총장 선출제도가 아닌 재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이번 해 8월, 총학과 비대위가 전체교수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두 번째, 징계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안건은 지난해 3월 발생한 L교수 미투 사건을 토대로 발의됐다. 현재 교수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권은 교수만이 갖고 있다. 이에 총학은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교수의 징계를 논하는 자리에 학생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학생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 캠퍼스별 할당 금액 균등화 안건이다. 양 캠퍼스는 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 300억 원을 모금한 바 있다. 총학에 따르면 이 중 230억 원이 서울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에 투입됐다. 이에 총학은 학교 본부가 양 캠퍼스 발전에 대한 균형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식적 의결안건 이후 진행된 기타토의안건으로 ‘학식 가격 인상’이 제기됐다. 한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상당히 올랐으나 학식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이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학식 가격 인상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글로벌캠퍼스의 학식을 주관하는 생협은 학교 부처가 아닌 조합이기에 학식 가격 결정 과정에 총학생회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회장은 “생협 사무국에 이러한 불만사항을 전달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캠퍼스 정기총회의 업무 보고

서울캠퍼스 하반기 정기총회는 △논의안건△보고안건△결의안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826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채 400여명의 재학생이 모인 상태에서 시작됐다. 비대위는 논의안건인 ‘A교수 장기근속 포상철회와 일부 학칙 개정안 요구’에 대한 참가자 일동의 결의를 진

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비대위장은 “경비업체가 동반된 안전협의회와 함께 구체적인 비용을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캠퍼스 정기총회 논의안건

이번 정기총회의 논의안건은 ‘A교수 장기근속 포상 철회 요구 및 일부 학칙·규정 개정안 요구’였다. 지난해 4월, A교수는 성폭력 가해 교수로 지목됐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결국 A교수는 정직 3개월이란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해 4월, 학교 측은 A교수에게 장기근속 10년을 포상했고 이에 대한 부상으로 순급 3등을 수여 했다. 이에 비대위는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성명문 제시, 교무처 항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들이 아닌 교수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쇄성을 띤다. 이에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됨을 근거로 교원징계위원회 학생참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교원징계위원회 학생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비대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철을 통해 교원징계위원회 학생참여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비대위장은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캠퍼스 정총, 무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학기, 양 캠퍼스 상반기 정기총회는 성사되며 안건을 성공적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학기 양 캠퍼스 하반기 정기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거나 모든 안건이 의결되지 못한채 중단됐다.

글로벌캠퍼스의 정기총회는 정족수인 678명보다 많은 700여 명이 모여 성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다수 인원이 이탈해 모든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실제로 첫 번째 안건 의결에선 총인원이 701명으로 집계됐으나 네 번째 안건을 의결할 당시엔 567명만이 남아있었다. 이에 대해 이유리(인문·철학 19) 씨는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내용과 맞지 않는 질문이나 유사한 형태의 질문들이 반복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 과정에서 다수 학생이 이탈한 것 같다”고 밝혔다. 덧붙여 “일정이 지연되면서 산만한 분위기 속에 총회가 시작됐다”며 당시 총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서울캠퍼스의 정기총회는 826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나 400여 명의 재학생들이 자리를 지킨 채 결의 안건에 대한 참가자 일동의 의결을 진행하며, 의결을 나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잔디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진행장소가 오바마홀로 변경됐다. 갑작스런 장소변경으로 원활한 정기총회 진행엔 어려움이 있었다. 냉난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무대 쪽 조명도 설치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참석 인원에게 이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배수연(사회·미디어 18) 씨는 “진행장소가 잔디광장이라면 이동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합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바마홀은 인접성이 안 좋기에 인원에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정족수 미달 원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양 캠퍼스의 정기총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비대위와 총학은 학교 측에 재학생의 목소리를 계속해 전할 것이란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행한 후 활동 및 결산을 밝히는 보고안건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지난 학기 4월부터 지난달까지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상반기 정기총회 결의안건 이행 여부를 보고했다. 비대위는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결의안건으로 제기된 민주적 총장직선제 협의체 마련을 위해 학내구성원 회의를 진행한 후 교수협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선범 서울캠퍼스 비대위원장(이하 이 비대위장)은 “안건을 상정했지만, 전체교수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끊임없이 교수협의회를 압박해 기존 총장선출제도가 학생참여 총장선출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자치 공간 24시간 개방의 진행 상황에 대해선 학내 건물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무인 경비를 동반하는 방안을 제시 중이라 밝혔다. 한편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지난 학기 총장과의 대화에서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들며 건물통제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현재 자치 공간 24시간 개방에 대한 학교 측과 재학생을 비롯한 비대위의 의견 차이

기소된 타다, 신생 운송업계의 운명은?

지난달 28일, 이재웅 쓰카 대표가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 불법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타다의 운영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 사실에 국내 최대 스타트업 업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국회△검찰 모두 스

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히면서 검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타다와 같은 신생 운송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타다가 왜 불법 행위로 기소됐는지, 나아가 신생 운송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에서의 논란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타다란

타다는 기존 택시의 문제들로 제기됐던 승차 거부, 바가지 요금 등을 개선하며 혜성같이 등장한 서비스다. 타다의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호출하는 점에서 카오택시와 공통점이 있으나 차량이 승용차가 아닌 11인승 렌터카이고 운전자를 타다에 소속시켜 고객 대응방식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왜 타다는 11인승 차량을 고집할까? 이는 타다가 여객운수사업 현행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내놓은 전략이다. 기존법 상 렌터카 대여 후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엔 운전자 알선 및 파견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는 시작 1년 만에 △업체 등록 차량 1,400대△이용 회원 125만 명△운전자사 9,000명에 이르는 규모로 확대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불법 판결이 나오기 까지

타다의 폭발적인 성장은 택시 이용자 수 감소를 불러왔다. 자신의 주요 고객층을 뺏긴 택시업계가 타다의 운송시장 점유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내놓은 대응방식은 고발이었다. 이번 해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기소 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자문을 의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1년 넘게 판단을 유보하다 결국 검찰에게 다시 타다에 대한 판단을 떠넘겼다. 이에 검찰은 타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여객 운송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을 한 혐의로 타다 운영진을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사실에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을 것이고 불법이라고 했다면 신생 운송업계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됐을 것”이라며 책임회피론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 완화로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해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내에서 택시업계에 기여 비용을 낸 기업만 사업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일각에선 여당이 정치적 표가 많은 택시업계를 의식했기에 이러한 개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타다가 운영 중인 11인승 승합차 (출처 : 타다 공식 홈페이지)

차별화된 서비스로 운송업계 신흥강자로 급 부상한 타다마저 논란의 규제에 발목잡혀

신산업 장려하는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현행법 완화 필요성 여론 커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산업의 갈등

택시업계와 다른 차량 서비스 간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엔 세계적인 운송 업체인 ‘우버’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자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도 우버 기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우파라치’ 정책을 통해 우버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2014년 우버코리아의 모회사인 우버 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우버코리아를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엔 우버코리아 지사장과 렌터카 업체 대표 등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돼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아가 2015년에 국회는 우버와 같은 유사택시의 운송사업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인 일명 ‘우버택시 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버

의 우리나라 시장 진출을 원천 봉쇄했다. 결국 우버는 우리나라 시장 진출 계획의 상당수를 포기하고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만 계속 운영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당시 정부가 우버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국내 택시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컸다. 그러나 국내 기업인 플러스의 카풀과 카카오키푼이 택시업계에 밀려 연이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기에 이르자 기존의 정부가 주장했던 명분은 무색하게 됐다. 새로운 신생 운송업계에 대한 압력이 국익 측면이 아닌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기소에 대한 극명한 여론 차

이번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한 여론은 극명하게 나뉜다. 택시업계는 “검찰의 정의로운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며 검찰의 기소를 긍정적으로 봤으나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정부가 약속했던 규제혁신은 물론 국민을 위한 택시산업 개선조치 이뤄지지 않는 과정의 반복”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게재된 타다 합법화에 대한 청원 글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청원인은 기존의 규제들이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소비자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타다의 서비스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기존 택시조합 등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아 서비스가 중지된다면 소비자로서 깊은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며 “택시는 타다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말 걸기 전에 먼저 말을 걸지 않거나 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래를 틀지 않는 등 기존에 비판받던 서비스를 개선해 고객을 유치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타다’와 같은 신생 운송업계가 운송사업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구 운송사업인 택시업계와 신생 운송업계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안을 찾아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흡 소 사 이 어 티

해외문학회

같은 책을 읽어도 느낀 점은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학교엔 해외의 문학작품을 읽고 각자의 견해와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아리인 ‘해외문학회’가 있다. 해외문학회에선 다양한 나라의 작품을 공유하는 꾸준한 활동이 이뤄진다. 박승민(서양어·프랑스 16) 해외문학회 회장을 만나 동아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해외문학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외문학회는 전 세계의 문학작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중앙동아리입니다. 외국의 여러 문학작품을 읽고 이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작품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Q2.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에겐 여유가 될 때마다 톰튼이 독서를 즐기는 취미가 있습니다. 독서를 한 후 지인과 작품에 대한 대화를 나눠 보면 똑같은 내용과 표현에 대해서도 개인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만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면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의 해석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매력적이고 개

성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추천받고 싶기도 했습니다. 해외문학회가 제가 원하는 활동에 부합하는 동아리였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Q3. 이 동아리에선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해외문학회의 활동은 크게 △주간 세미나△문학영화제△정기세미나로 나뉩니다. 주간 세미나는 매주 1회 진행되고 세미나에선 부원들이 돌아가며, 각자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작품의 발제를 진행합니다. 공지된 발제작을 부원들 모두가 읽고 세미나에서 그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문학영화제는 1학기 중 진행되며 이는 영화화된 작품에 대한 문집 발간과 더불어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 영화를 시청한 후 부원들이 쓴 글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또 다른 활동인 정기세미나는 2학기에 진행되며 작품 선정이 영화와 관련되지 않는단 점을 제외하곤 세미나에선 △문집 발간△서평 발표△학우들과의 의견 교환이 1학기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Q4.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인가요?

각국의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답게 부원들은 본인의 전공 언어 국가의 작품을 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융합일본지역학을 전공하는 부학회장인 발제했던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노르웨이의 숲’에 대한 세미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작가의 섬세한 표현력이 인상적이었고 △상실△자아△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이에 대해 부원들과 함께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5. 활동 중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발제를 진행했을 때였습니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 실존주의에 관한 책과 논문을 찾아 읽어보며 공부했습니다. 불어 원문으로도 읽어보는 등 굉장한 열의에 차서 준비해 세미나는 만족스럽게 마쳤으나 돌아보니 스스로 부담감에 꽤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발제 준비로 고생한 만큼 ‘이방인’을 비롯한 저의 다른 발제작에 대한 내용과 감상이 여전히 머

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답니다.

Q6. 2학기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학기엔 시험 직전 주를 제외하고 계속되는 주간 세미나와 11월 22일 금요일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브릭스홀 화상강의실에서 진행될 정기세미나가 계획돼 있습니다. 2학기에 새로 들어온 부원들에게 먼저 주간 세미나 발제권을 부여할 예정이고 정기세미나 문집 편찬도 기존에 활동하던 부원들이 신입 부원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학기에도 좋은 작품들을 읽을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올바른 여론형성, 이제는 시행돼야 할 때

지난달 가수 고(故) 설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평소 고인이 악성 댓글(이하 악플)에 시달렸다는 점이 사망의 핵심원인으로 꼽혔다. 대중들은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연예인과 정치인 등에게 악플을 남긴다. 익명성에 가려진 악플의 피해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지속돼 왔다. 익명성 댓글의 폐해와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최민선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를 통해 알아봤다.

자료제공: Google

최민선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가수 고(故) 설리의 사망 이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 카카오와 국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댓글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연예 뉴스 댓글과 인물 키워드 관련 검색어 폐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래전부터 댓글을 포함한 △뉴스△관련 검색어△실시간 이슈 검색어 등 사회적 여론 형성과 관련된 서비스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왔다”며 “서비스 개선 방향의 시작점은 연예 뉴스 댓글과 인물 키워드 관련 검색어 폐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온라인 댓글 책임성을 높이고 악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댓글 작성 시 아이디 전체와 컴퓨터 주소(IP)를 함께 공개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은 폭력자가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언어폭력의 자유와 간접살인 행위는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엔 악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에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가 포함됐다.

Q1. 카카오가 최근 연예 뉴스 댓글과 인물 키워드 관련 검색어를 폐지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연예인인 설리의 사건이 계기가 됐을 겁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삶을 내려놓은 연예인들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악플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연예 뉴스란 댓글에서 발생하는 인격 모독이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검색어 역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검색 편의성을 높인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Q2. 위와 같은 제도는 어떤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불러오나요?

카카오 연예뉴스에서 악플을 사라지게 하는 즉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카카오 연예뉴스에 한정해 댓글을 폐지했지만 이후 이런 정책이 다른 뉴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정치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악플뿐만 아니라 댓글을 쓰거나 읽는 행위가 원천 차단됨으로써 사람들이 이슈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나눌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인터넷 공간 속 익명성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은 무엇이 있나요?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프라이버시 침해 방지△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오프라인과는 다른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실명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확장돼 더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욕설하고 다른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차별이나 혐오 발언 등을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Q4. 댓글 실명제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실명제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도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실명제 시행 전과 후(2007년 8월, 2008년 8월) △다음 △머니투데이△디시인사이드의 게시판 댓글 분석한 결과, 2007년 전체 댓글의 13.9%였던 악플은 2008년 13%로 악플의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2010년 우지숙 서울대 교수팀이 디시인사이드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선 댓글의 비방과 욕설이 일부 줄어들었으나,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은 그대로였습니다. 또 비방적 게시글에 대한 악플은 실명제 후 줄어든 반면, 비방적이지 않은 게시글에 대한 악플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순환적으로 악플을 다는 이용자들에선 실명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두 연구 모두에서 실명제 실시 후 게시글과 댓글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즉 실명제가 게시판의 본래 기능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Q5. 기자들의 보도형태가 악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 사회적으로 가치없이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뉴스를 생산해 악플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틀테면 △진위를 알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관한 커뮤니티 게시판 글△팩락 없

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글△굳이 다수가 필요가 없는 (주로 부정적 이미지 있는) 유명인의 SNS 일상△상황과 반대되는 제목이 달린 사진 기사 등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설리의 보도 기사와 악플에서도 그러한 징후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지숙 교수팀의 연구에서 ‘비방성 게시글에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는데 이는 자극적이고 악의를 담은 보도 기사가 악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Q6. ‘악플방지법’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악플방지법 대부분이 아이디와 인터넷주소(IP)를 공개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2010헌마47등) 실명제가 게시판 이용자의 의사표현을 위축시켜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실명제의 악플 감소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포털에서 인터넷주소(IP) 추적이 가능합니다. 현재 판결을 감안할 때 악플방지법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입법기관에서 이번 법안을 제안한 것은 논의를 한쪽으로 쏠리게 할 뿐 우리 사회가 다른 식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Q7. 댓글을 통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언론사 △포털 사이트△대중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일단 언론은 악플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진지하게 자신들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의미없고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해선 안됩니다. 언론과 포털 등 우리 사회 전반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악플을 없애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 악플을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생각하지만 악플 속의 혐오와 차별은 큰 문제입니다. 악플과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미경 기자 99migyou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19. 9. 30(월) ~ 10. 4(금)	10.26(토) 10:00	11.7(목) 14:00	11.11(월)~11.15(금)
일반전형	2019. 11. 11(월) ~ 11. 15(금)	12.7(토) 10:00	12.19(목) 14:00	12.23(월)~12.27(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다.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멋있는 백조

항상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며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져도 그것은 결국 나에게 '멋'이었다. 대학에 진학해 지금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도 내가 꿈꾸던 멋있는 사람에 한 발짝 가까워질 것 같아서였다. 학보에 지원한 이유도 비슷하다. 기자는 멋있는 직업이고 대학 생활 중 기자로 활동한다는 건 멋있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언론의 기자라는 건 백조에 가까웠다. 우아하고 완벽한 결과물을 보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심 없이 발을 움직여야 했다.

학보에 합격한 뒤,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방중 수업 교육을 기다렸다. 교육 기간엔 백조가 되기 위해 발장구치는 범부터 차근차근 배워가야 했다. 앞으로 발장구 쳐야 할 물의 특성과 지켜야 할 규칙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점차 적합한 자세를 잡고 나아갈 방향을 익혀갔다. 다음으로 열심히 발장구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이 물은 잔잔하고 평화로우며 먹이가 넘치는 풍요로운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먼저 학보의 한 호를 구성하기 위해 회의 주간에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먹이와 아닌 것을 구별해내고 나면 잘 차리고 손질하는 일이 남는다. 먹이의 출처부터 성분까지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먹이를 보여주고 적당한 반응을 받아와야 한다. 이 단계가 끝나면 마감 날까지 다시 고르고 잘 조향해 요리한다. 이렇게 요리된 글은 마감 당일에도 다시 숙고해 끊임없이 고쳐낸다. 요리가 끝나면 먹음직스럽게 잘 담은 일도 중요하다. 기사가 완성되면 조판이 시작된다. 반복해서 수정하고 오류를 찾아내며 신문의 틀을 맞춘다. 그리고 신문 발행일이 돼 서야 이 모든 발장구를 잠시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물엔 백조가 여럿이라는 사실이다. 공동체는 갈등과 시형착오를 통해 성장한다. 서로 다른 물에 살다 온 여럿이 모이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백조 간에 갈등이 생기면 한바탕 큰 파동이 일어난다. 요동치는 물은 뜻밖의 것을 데려와 백조들을 환기시켜주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물 밖으로 떠나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떠한지 역시나 이별의 끝은 쓰다. 하지만 그 파동에서도 단단히 버텨낸 백조들은 단결력을 얻는다. 또한, 그렇게 적응하며 애정과 책임감을 배운다. 마침내 물으로 나오면 학교 곳곳에 놓여있는 학보를 볼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작지만 소중한 뿌듯함을 얻으며 다음 호를 위한 원동력을 키운다.

누군가 나에게 '아직도 대학 언론 기자가 멋있냐'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비록 물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묵묵히 삼키는 백조가 돼 스스로의 미숙함을 마주해야 하고 간혹 '누군가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해도 여전히 학보 기자는 멋있다. 치열하게 발전해나가고 올바르다고 믿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잘 견디며 단단한 사람이 돼 학보 생활을 마친다면 멋있는 일을 해냈다고 얘기하고 싶다.



헤리나 기자

멈춰서 돌아보기 [뮤지컬 '호프'를 감상하고]

뮤지컬 <호프>는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이란 부제를 갖고 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는 이 뮤지컬에 눈길이 갔다. <호프>의 중심엔 '요제프 클라인'의 미발표 원고가 있다. 무명작가였던 요제프의 재능을 동경한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트'는 요제프가 자신에게 준 미발표 원고를 소중히 보관한다.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체코를 점령하자 베르트는 자신의 연인인 마리에에게 해당 원고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남긴 채 떠난다. 베르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리는 온종일 수용소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제프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점차 마리는 원고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의 목숨보다 원고를 우선시하게 된다. 한편, 마리의 결연 딸 '에바 호프'가 있다. 호프는 엄마인 마리가 원고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이에 호프는 마리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호프는 마리에게 "원고는 그냥 종이일 뿐이야"라며 "엄마처럼 사는 게 죽기보다 싫어"라고 소리친다. 원고에 대한 혐오가 심해진 마리는 원고의 일부를 팔아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호프에게 원고는 점차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 결국 호프 역시 마리의 발자국을 따라 걷듯 그녀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 국립 도서관은 호프가 팔아넘긴 미발표 원고의 나머지 분량을 호프에 요구한다. 이에 호프와 이스라엘 국립 도서관은 30년 동안 미발표 원고의 소유권을 두고 재판을 하며 호프는 늙어간다.

이 뮤지컬의 특별한 점은 요제프의 미발표 원고를 'K'라는 사

람으로 의인화시켰다는 것이다. 뮤지컬 속에서 단순히 종이로 원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원고와 호프의 화합을 그렸다. K는 자신에 집착하는 호프에게 "당신이란 책을 제대로 읽어봐"라며 호프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것을 도와준다. 이 대사가 호프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종종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먹고 살기 위해 애써 자신의 모습을 꾸며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인간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고 살아간다. <호프>는 관객들에게 '본디 그대로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위로를 전한다. 이에 관객들은 뮤지컬을 보며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결국, 극의 마지막에 호프는 K와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떠난다. 삶의 이유라 여겼던 K를 포기한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희망을 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호프와 마리처럼 '나'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삶의 이유가 된다면 후회가 남을 것이다. 자신을 위한 진취적인 삶을 살기 위해 <호프>가 제시한 방법은 '일상에서 나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자제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반드시 과연 나의 삶은 안녕한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김나현 기자 98nahyuuny@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다 영화 [뷰티인사이드]

혼자 가구를 만들면서 고립된 삶을 살던 '우진'은 자고 일어나면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어느 날 우진은 가구점에서 일하는 '이수'를 마주치고 서서히 그녀를 좋아하게 된다. 멋진 모습으로 바뀐 날, 우진은 3일동안 같은 모습으로 그녀를 만난다. 그렇게 마음을 얻은 우진은 이수과 아침을 같이 먹자는 약속을 한다. 하지만 결국 잠이 든 우진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다. 이수는 계속 우진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이수의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된 우진은 이수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나 이수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린 우진은 이수가 일하는 가구점에 인턴으로 들어가 자신의 비밀을 이수에게 고백한다. 이수는 이를 믿지 않았지만 계속 바뀌는 우진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기고 진심을 느낀 이수는 고심 끝에 우진의 마음을 받아준다. 하지만 매일 얼굴이 바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매일 모습이 바뀌는 우진이 익숙하지 않았던 이수는 점점 연애에 지쳐가고 우울증까지 앓게 된다. 결국 둘은 이별하게 된다. 이수는 우진을 잊으려 애쓰며 살아가지만 우진과 만나

면서 겪어야 할 상처보다 우진 없이 살아갈 미래가 더 슬프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수는 우진을 다시 찾아가고 우진은 자신을 모두 이해해주는 이수의 모습에 결국 이수과 다시 만나게 된다.

이 영화는 외면보다 내면에 집중한다. 매일 겉모습은 바뀌지만 내면은 그대로인 우진을 사랑하는 이수를 통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우진의 내면만을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이수의 모습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겉모습이 화려하면 보기엔 좋지만 진정한 나 자신은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 간의 뜨거운 사랑도 없고 큰 감정의 변화도 없어 지루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화에 집중하다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는 감독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외면보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이 영화에 빠져보기를 바란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1036호 학보를 읽고

삼동제,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축제일까

평소와 같이 등교하던 어느 날이었다. 잔디 광장 근처에 못 보던 플래카드가 걸려있어 유심히 봤다. 플래카드엔 우리학교의 상징인 부엉이 양옆에 매와 사자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제서야 축구경기로 시끌벅적한 운동장과 무대 설치로 바뀐 잔디 광장이 눈에 띄었다. 동대문구에 있는 세 학교가 함께 즐기는 축제라니, 연고전과 같은 다른 학교 교류전이 생각나서 신기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활기찬 학교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내년 너무 갑작스레 시작됐던 축제다 보니 삼동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준비과정이나 진행 과정을 전혀 몰라 아쉬웠다. 이번 1036호 학보를 통해 아직 내게 남아있었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학보를 통해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세 학교의 동대문구 축제'쯤으로 알고 있었던 삼동제의 진짜 뜻이었다. 삼동제가 '세 학교를 합하고 세 동네가 모여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되는 축제'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름처럼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학보에서 다뤘던 바와 같이 '문학의 밤'이나 '악동제'와 같은 행사들이 삼동제의 행사로서와 달기보다는 각기 다른 행사로와 달아서 '삼동제'라는 큰 맥락을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안타까웠다. 각각의 테마 별 행사가 즐겁고 재미있기는 했지만 두 번째로 개최될 축제에선 큰 맥락에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은지(사회·미디어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36호 학보를 읽고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험공부와 조가울의 따뜻한 날씨가 어느새 자취를 감춘 10월 말이다. 학교생활도 계절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환절기'속,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가령,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대자보처럼 말이다. 신입생이었던 지난해 나에게 이 대자보들은 교내 권력 기구의 문제를 고발하는 민주적인 목소리의 표현으로 느껴졌다. 사과문이나 징계 처리에 대한 내용이 붙었을 땐 학생의 뜻으로 자치가 이뤄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대자보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에선 반복되는 교내 학생자치기구의 문제를 꼬집는다. 최근 양 캠퍼스의 사건을 다루면서, 동시에 이전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문제들을 언급한다. 독자로 하여금 '유착관계를 통한 부정선거'와 '대표자의 직무유기와 책임감 부족'이라는 학생자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의 반복이 학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 또한 자신의 부정행위를 반성하기보다 다른 이에게 표적을 돌리며 지적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탓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건의 전모를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 다만 학생자치기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학교의 사례를 통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면 독자

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교내의 학생자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의 의문은 '검찰개혁'을 다룬 사회문화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불거진 '검찰개혁'은 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해당 기사는 검찰개혁의 발단부터 촛불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갈린 국민들의 목소리와 검찰개혁의 방향을 짚으며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검찰개혁'이란 논란의 전모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대학보 1036호에선 불가리아 총리의 방문과 양 캠퍼스의 주요 축제 등 학교의 굵직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아쉽게도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행사를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어 좋았다. 이번 학보를 읽으면서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할 △교내의 학생 자치 문제 △'검찰개혁'이란 사회의 문제 △도쿄 올림픽의 논란이란 국제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다양성이 외대 학보의 매력이란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1036호를 발행하기 위해 애쓴 외대학보 기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친다.



맥락 없는 혐오에 대해

지난달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했다. 영화는제목 그대로 1982년생인 김지영이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해당 영화 내용을 둘러싸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성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일부 누리꾼이 이러한 논쟁에 불을 지피며 논쟁은 거세졌다. 이는 우리 사회 기저에 존재하던 맥락 없는 혐오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맥락 없는 혐오는 비단 성별 갈등에서만 드러나는 것이아니다. 이는 미성숙한 정치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 8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 미사일 도발엔 대통령이 병어리가 돼 버렸다”며 장애인 비하가 담긴 표현을 공식 석상에서 내뱉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월 공식회의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노인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5월,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성애는 담배 피는 것보다 훨씬 더 인체에 유해하다”며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저질렀다.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방송인이자 웹툰 작가인 기안84는 장애인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기안84가 자신이 연재하고 있는 웹툰인 ‘복학왕’에 청각 장애인의 어눌한 발음을 희화화하는 듯 보이는 장면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논란 장면이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비하 의도가 나타난다며 작가에게 항의했다. 이후 해당 장면은 수정됐으나 주요 독자

연령층이 10~20대인 해당 작가의 작품이 단시간에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이처럼 앞서 언급한 사례들로 미뤄봤을 때 맥락 없는 혐오는 단순히 특정 계층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여성△노인△아이 등 모든 사회적 약자와 나이가 불특정 다수 역시 무차별적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난무하는 혐오 표현은 편견을 기반으로 시작된다. 편견은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다.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기초로 특정 대상을 자신만의 잣대로 규정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차별로 이어진다. 이 때 혐오 표현은 이미 존재하던 뿌리 깊은 차별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차별이 만연한 사회는 통합할 수 없고 이러한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예민해져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창구가 많아졌다. 비판적인 의식 없이 모든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혐오 표현에 둔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소한 것 일지라도 혐오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혐오에 민감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민함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우리 사회는 차별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안효빈 부장 97anhyobin@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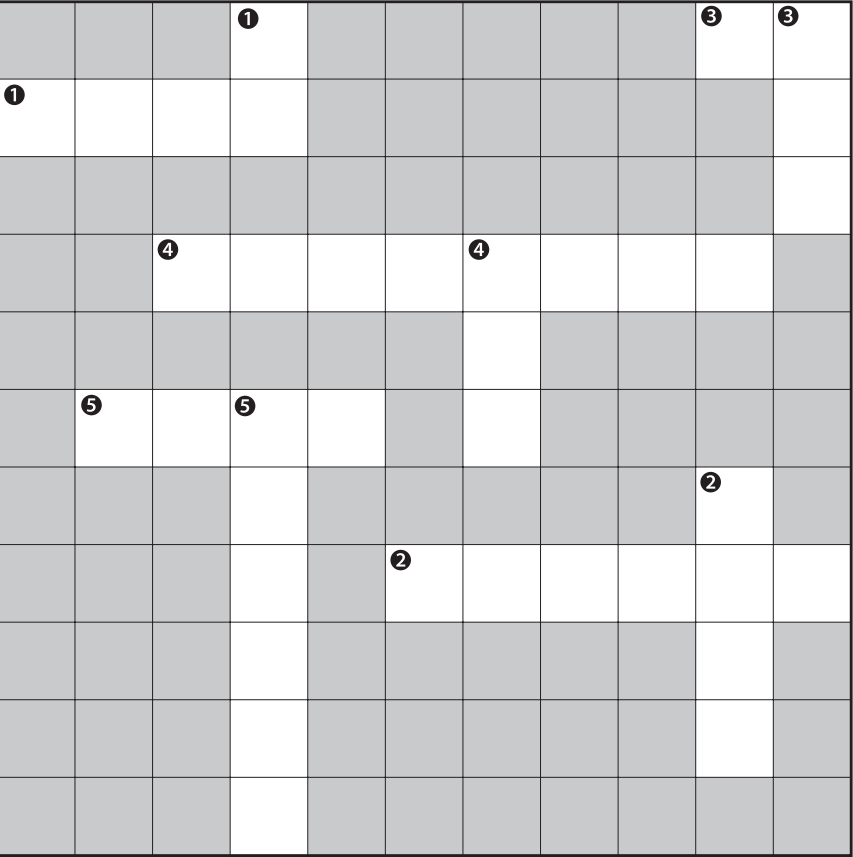
우리학교 풍경

캠퍼스의 가을이 깊어 갑니다.
아름다운 교정의 단풍을 잠깐 감상하세요!



사진 : 김지수 편집장

십자말풀이



- 가로**
- 1. 얼어붙은 ○○○○, 양 캠퍼스 하반기 정기총회를 돌아보다. (7면 참조)
 - 2. 김춘식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학회장으로 취임해 (2면 참조)
 - 3. 뮤지컬 ‘○○’를 감상하고 (10면 참조)
 - 4. ‘○○○○ ○○○○, 취업난을 위한 방안 (4면 참조)
 - 5. 이날 ○○○○ △공약 이행률 보고△업무 보고△논의 및 의결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7면 참조)
- 세로**
- 1.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모현 전철역 ○○ 협력해 (2면 참조)
 - 2. ○○○○, 과거와 미래의 교차점에 서다. (5면 참조)
 - 3. 저는 대학시절 영어 회화 수업과 ○○○문화 체험활동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12면 참조)
 - 4. 유서깊은 도시, ○○○ (6면 참조)
 - 5. 지난달 8일과 30일, 각각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오버마를 지하 국제회의실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 ○○’가 열렸다.(3면 참조)
-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번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디지털 시대의 정보혁명과 지식, 그리고 자기수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기술은 13세기 초 고려에서 시작됐다. 현존 기록에 의하면, 고려 고종(高宗, 1192~1259)대에 원(元) 제국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천도(1232)하기 전부터 이미 이 기술이 있었다. 고종 18년인 1231년부터 시작된 원 제국의 침략과 고종46년(1259) 강화조약 이후 맞게 된 원의 간섭시기에는 중앙의 주자(鑄字) 인쇄 기능은 축소 내지 마비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1251년에는 1231년 몽고 침입으로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다시 만든 재조팔만대장경이 완성됐다. 그리고 1377년 7월 청주목(淸州牧) 교외에 있던 흥덕사(興德寺)에서는 백운화상(白雲和尚, 1299~1375)의 이름으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펴냈다. 이 책이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책이다. 이 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高宗, 1852~1919) 때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주한프랑스 대리공사로 있던 중, 1896~1901년 사이에 수집하여 프랑스로 가져갔다. 이 책은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001년에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고려시대의 기록유산과 조선시대의 왕조실록 등의 기록유산을 통해 본 우리나라라는 ‘기록의 나라’라고 부를 만하다. 또 세종(世宗, 1397~1450)의 훈민정음(訓民正音) 발명(1433)으로 우리나라는 ‘문자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15세기에 이미 ‘기록의 나라’, ‘문자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다르게 ‘문자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글말인 한문으로 학문을 지속했던 시대적 한계 때문이다. 15세기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로 비로소 책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 자기 나라 말들로도 책이 대량 생산됨으로써, 이를 통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15세기에 가히 ‘문자혁명’이 시작됐다. 이 ‘문자혁명’은 유럽인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다. 이 ‘문자혁명’으로 유럽의 중세는 종말을 고했고, 이른바 유럽의 근대가 출현했다. 지식은 늘 새로운 지식에 의해 보완되고 대체되면서 변화해왔다. 현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한다. ‘디지털 시대’의 지식은 그동안의 아날로그 시대의 지식 변화 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빠르게 변한다. 인간의 언어는 이제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의 기계언어로 정보가 변환된다. 모든 정보와 지식이 디지털화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컴퓨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그 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된다. 우리는 ‘정보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누구나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중세를 벗어난 근대가 현대가 되었고, 현대는 다시 미래로의 새로운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정보와 지식의 구조, 그리고 그 지식의 유효 기간은 근대와 완전히 달라졌다.

공자(孔子, B.C.551~B.C.479)는 《논어(論語)》 첫머리에서 “배우고 때로 익혀가다 보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라고 하지만, 디지털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낯선 정보와 지식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념, 태도,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 불편함이 생기는 ‘인지부조화’가 발생한다. 이런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기대, 신념, 판단에 맞는 확정적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확증편향’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영향을 주거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만을 인식하는 경향인 ‘선택적 인지’를 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디지털시대에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우리는 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공부하면서 스스로 계속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자신에게 의미있는, 지속 가능한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 일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정보의 바다에서 이들을 꿰는 ‘통찰력’과 자기 내면의 가치를 찾는 ‘자기반성력’ 그리고 대면접촉이 부족한 환경에서의 ‘함께 잘 어울리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디지털 시대에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과 그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한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더욱 ‘자기를 비움때’ 더욱 ‘큰 나’가 되라는 가르침은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미래적인 것이다. 공자(孔子)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 했고, 소크라테스(Socrates, B.C.470경~B.C.399)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했다. 2,500여년 전의 고전적 가르침인 ‘자기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과 통찰’이 디지털 시대의 지적 존재로의 성장에 첫걸음인 셈이다.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7didu@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지수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 최정화 교수를 만나다.

△1992년 프랑스 교육공로훈장△2000년 다니카 세렛코비치상△우리나라 여성 최초 2003년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2018년 영산 외교인상 등을 수상한 최정화(서양어·불어 74) 동문은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교수로서 1988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그의 40여 년에 걸친 통역이력은 굵직한 국제회의에서 꾸준히 빛을 발하며 우리나라 경제·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이에 최정화 교수가 걸은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Q1. 우리학교 불어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우리학교엔 외국인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고 저는 불문 학이 아닌 불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최초로 과별 모집이 아닌 계열별 모집을 했습니다. 사회 계열과 인문계열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저는 불어를 배우고 싶어 인문계열에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시험결과가 좋지 않아 우리학교에 2차로 응시하게 됐고 최종합격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 중 80%는 재수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으나 저는 우리학교에 큰 애정을 가져 학교에 성실히 계속 다닌 후 졸업했습니다.

Q2. 대학시절부터 지금까지 걸온 길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시절 원어 회화 수업과 프랑스 문화 체험활동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은 우리나라에선 상영되지 않는 프랑스 영화를 상영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이곳에 다니며 불어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은사님이셨던 서정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시통역학문이 프랑스에는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저에게 해당 학교 진학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 계기로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공부를 하며 국제회의 통역사뿐 아니라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국제회의 통역사 활동을 하며 프랑스에서 10년 동안 지내던 중, 모교에서 후진 양성을 하는 교수직을 제안을 받아 다시 귀국했습니다. 이후 교수와 국제 통역사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국제 통역사로 활동하다 보니 여행을 다닐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능이 뛰어난데도 국가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CICRI)'이란 국제 재단을 설립했고 현재까지도 재단 이사장과 교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Q3. 국제회의 통역사는 무엇이고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제회의 통역사는 △정상회담△총회△포럼△심포지엄 등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정상들 옆에서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을 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 아세안(ASEAN) 등 약 2000여 개 국제회의에서 통역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통역은 역사 흐름의 한순간을 함께하는 것이기에 저는

일을 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게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세계의 리더들을 보며 △소통 능력△문화적 소양△상대방에 대한 포용력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소통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역 능력뿐 만이 아닌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4. 통역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노력이 어떤 것이 있나요?

통역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노력은 △모국어 실력△배경지식 습득 능력△일정의 적성으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국어 실력입니다. 사람들은 통역사가 외국어 능력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국어 실력 역시 중요합니다. 모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더라도 통역을 잘 할 수 없습니다. 통역은 언어에서 언어로 이뤄지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수준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배경지식 습득 능력입니다. 통역을 잘하기 위해선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예술 등 모든 분야의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언어 능력을 아무리 잘 갖고 있더라도 언어로 표현할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반적인 언어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는 적성이 맞아야 합니다. 통역은 △순발력△집중력△분석력△정확성을 요합니다. 회의가 대부분 2~3일 동안 진행되기에 체력 역시 중요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많이 만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담력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통역을 해야 하기에 일정기간동안 상대방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통역사를 꿈꾼다면 이런 노하우를 전문 교육 기관에서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Q5.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프랑스로 유학을 갔을 때 저는 3년 동안 하루 10~15시간씩 주말도 없이 공부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님이 외국인이어서 3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대학 졸업 전까지 외국어를 공부하려 해외로 나간 경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공부한 불어 실력만으로 이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제가 직면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증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금융△과

학△기술△국방 등 여러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역시 힘들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제게 외국어를 잘하는 비결을 물어봅니다.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선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Q6. 우리학교의 통역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 하면 됩니다. 통역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공부 많이 하면 반드시 외국어 실력은 향상되기에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우직하게 정진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끝까지 우직하게

했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다 잘되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를 때까지 도전·시도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순차통역: 연사가 잠시 쉬는 동안 말을 통역하는 것
*동시통역: 연사가 하는 말을 독립된 부스 등의 장소에서 쉬지 않고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것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www.korean.ac.kr

2019학년도 겨울학기(제45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KFL

2019학년도 겨울학기(제45기) 신입생 모집안내

원서접수 및 지원자격
- 국내 유일의 언어권별(영, 중, 일) 맞춤 이론 수업 진행 - 실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실습 수업 실시 40년 전통의 한국어교육의 산실 한국외대 한국어 교육과의 노하우 전수 - 한국어교육 권위자 허용 교수(Marquis Who's Who 등재) 직접 강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 제공 - 우수 수료자 대상 본 원 강사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원서접수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12월 23일(월) 오후 4시 지원자격 : 고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단,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TOPIK 6급 소지자) 접수방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상세 내용 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www.korean.ac.kr) 전 형 료 : 20,000원 등 록 금 : 1,490,000원(교재비 포함)
문 의 처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외국어연수평가원 101호)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전화 : 02-2173-2260 / 이메일 : cklae@hufs.ac.kr

교육일정
2020년 1월 6일(월)~2월 7일(금)
월~금 / 9:20~17:30
(총 126시간 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CENTER FOR KOREAN LANGUAGE & CUL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